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7 휘트니 미술관

미술의 즐거움 시민들에게 평평 쏟아내

뉴욕의 전통적인 갤러리 지역인 메디슨 애비뉴 75번가에 가면 피라미드를 얹어놓은 듯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이다.

있다. 실제로 소장품 가운데에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에드워드 호퍼, 알렉산더 칼더, 조지아 오키프, 제스퍼 존스 등 미국작가의 팝아트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벽면을 이용한 작품도 만들 수 있어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전시에도 알맞다. 휘트니 미술관은 무명의 젊은 작가들에게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한 '행동하는 미술관'이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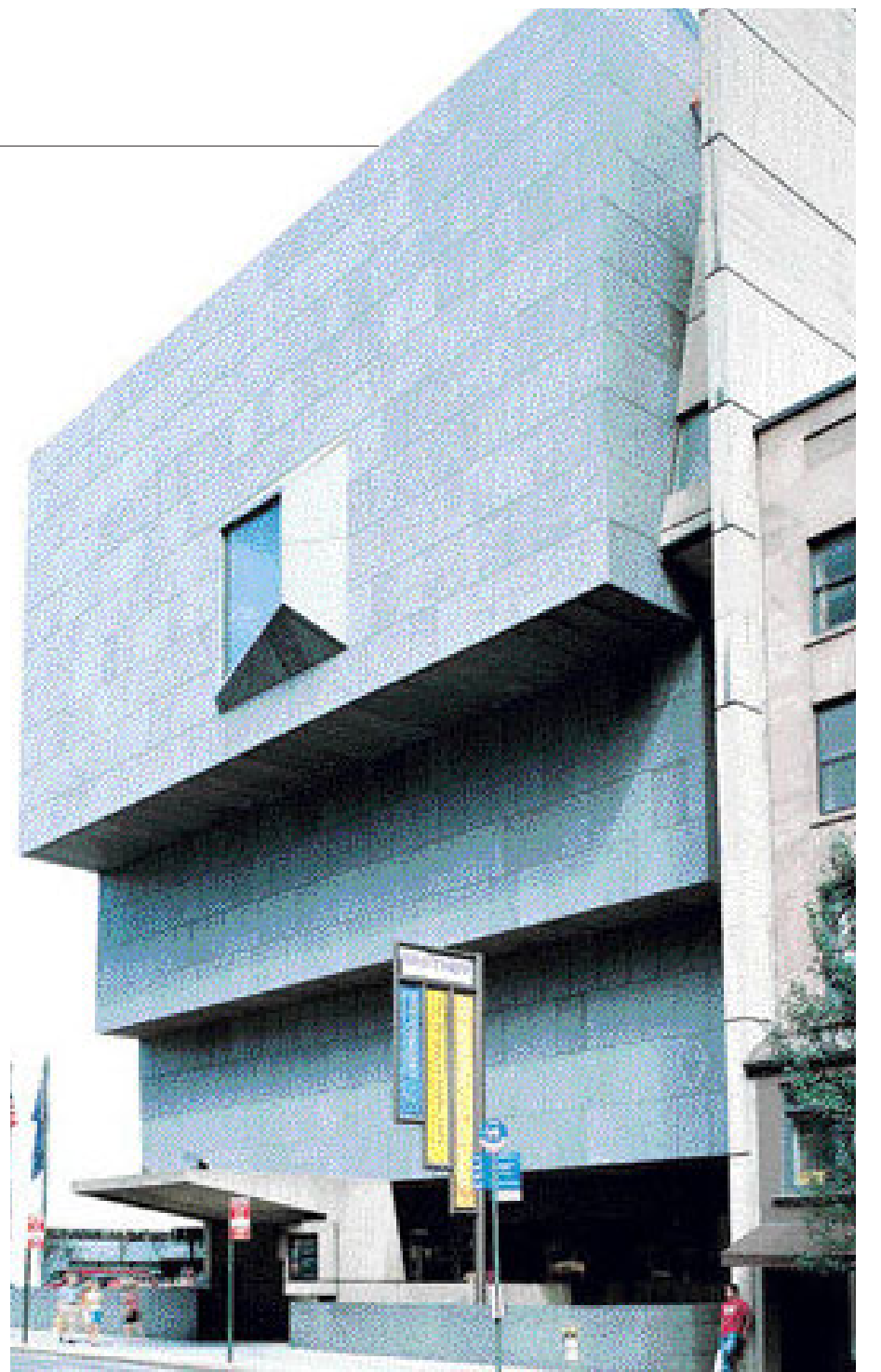
으로 탄생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객은 물론 미술관에 올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부터 뉴욕시의 여러 노인단체들과 연대해 전개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 관람객들을 10~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전시회, 강연회, 영상화 등에 초대한다.

또한 미술관은 예술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미술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 앤 패밀리(Kids & Family)', 방과 후 워크숍(After School Workshop), 작가와의 대화시간, '퍼블릭 프로그램' 등이 연중 운영된다.

/뉴욕=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뉴욕 맨하탄 메디슨가에 위치한 휘트니 미술관 전경. 미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으로 불린다.

미국 현대미술 대표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 앤디 워홀 등 팝아트 작가들 작품 다수 소장 노인단체와 연대 전시회 등 노년관람객 초대

어서면 아트숍과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는 지하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하층 앞뜰에는 조각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야외 전시장 겸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엘리트작가 위주의 권위주의적 미술전람회에 반기를 들고 출범한 휘트니 비엔날레는 출품작들에 대한 시상제도는 물론 상금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휘트니 미술관은 미국의 미술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한다.

700여점에서 출발한 휘트니의 컬렉션은 세계적 화상품 메이커인 에스티 로더 등의 기증에 힘입어 회화, 조각, 영상설치, 소묘, 판화, 사진 등 1만2천여점으로 늘어났다. 지난 1931년 뉴욕 웨스트 8번가의 기존 건물에서 처음 문을 연 휘트니 미술관은 미술관의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국 국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되어 있다.



휘트니 미술관의 '키즈 앤 패밀리(Kids & Family)'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버지와 딸이 드로잉에 열중하고 있다. (휘트니 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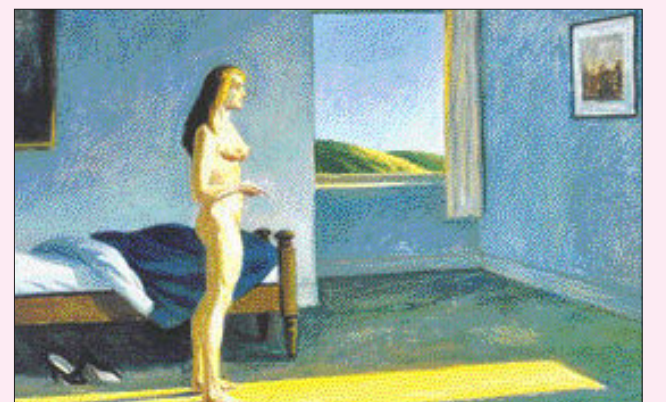
휘트니는 '호퍼의 미술관'

美 사실주의 작가 작품 2,500여점 소장

휘트니 미술관이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으로 불리는 데에는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1882~1967)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미망인은 호퍼의 작품 약 2천500여점을 미술관에 기증, 휘트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는 단일 기증으로는 휘트니 사상 가장 많은 규모로 꼽힌다.

에드워드 호퍼는 화려한 실연이나 해체가 난무하던 20세기의 미술사에서 꽃피어 눈에 비친 풍경과 사람을 그리는 사실주의를 고집했다.



에드워드 호퍼 작 '햇빛속의 여인'(1961년)

이) 왜 파리를 말하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갖고 돌아온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마치 영화 한 장면을 정지시켜놓은 듯한 스틸사진을 연상케 한다. 전일주대, 호텔, 레스토랑, 극장 등 미국인들의 일상과 친숙한 공간에서부터 여성과 태양광선을 테마로 한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소외감을 간접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정우부동산',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국민공인중개사', '무등공인중개사', and '알파공인중개사'.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for sale or rent.